

7월 3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3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이틀째 조정.. 다우 0.29%↓	뉴욕 증시가 29일(현지시간) 이틀째 조정 양상을 이어갔음.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더 악화된 점이 부담이 되었음. 다만, 장 후반 `베이스북`이 발표된 직후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크게 줄였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6.00포인트(0.29%) 하락한 9,070.7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75포인트(0.39%) 떨어진 1,967.76을,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4.47포인트(0.46%) 내린 975.15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 증시는 약세로 출발했음. 앞서 마감된 중국 증시가 5% 하락했다는 소식에 이어 6월 내구재 주문이 올 들어 최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장 전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도 저조했음. 최근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감이 높아진 가운데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투자심리는 급속히 악화되었음. 다만 장 막판 15분 가량을 남겨두고 저가매수세가 강하게 일어났음. 연준이 발표한 `베이스북`에서 미국의 경기위축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장막판 매수세를 불러들였다. 이에 힘입어 낙폭을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었음.
내구재 주문 예상치 큰 폭 하회	미 상무부는 6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항공기, 방위장비, 컴퓨터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내구재 주문은 지난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밑돈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0.6% 감소를 예상했었음.
베이스북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 위축세 둔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베이스북을 통해 최근 2개월간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기위축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음. 베이스북에 따르면 6~7월중 12개 연은 지역 대부분에서 경기위축세가 둔화된 가운데 전후 최악의 리세션이 종료될 것이란 징후도 더 많이 나타났음. 지역별로는 최대 경제권인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클리블랜드, 캔사스, 뉴욕 등 4곳의 연은 지역에서 `안정화 신호`를 내보였고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 연은 지역에서는 경기위축 속도가 둔화가 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국제유가, 美 재고증가 영향 급락..63달러선	국제 유가가 29일(현지시간) 5%대 급락세를 나타내며 배럴당 64달러를 하회했음. 이날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물은 전일대비 3.88달러(5.8%) 하락한 배럴당 63.35달러를 기록했다.

제목	주요 내용
美 달러 강세..증시·유가 하락 여파	달러는 29일(현지시간)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음. 증시와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결과임. 달러는 엔에 대해선 0.49% 상승한 95.0130엔을 나타내고 있음. 다만 엔은 유로 대비로는 강세를 나타내며 유로-엔 환율은 0.6% 하락한 133.23엔을 나타냈음.
보호장벽 올리는 EU, 中 수입철강에 반덤핑 관세	EU 27개국 통상 관료들은 28일(현지시간) 중국산 철강 파이프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승인. 아르셀로 미탈 등 철강사들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파이프 가격이 너무 낮아 위협적이라며 보복 관세(punitive tariffs)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 관세는 오는 10월부터 17.7~39.2%까지의 비율로 매겨질 예정이며, 앞으로 5년간 지속됨. 이미 지난 4월부터 관세율 24.2%로 임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바 있음. 중국 관료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더불어 이번 경우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 지난 27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과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진지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잇따른 외채 상환..대외 채무 지급능력 논란 증식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중 기타투자수지는 47억3000만달러의 유출초를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15억8000만달러 가량의 유입초를 나타냈음. 한은은 6월 기타자본수지가 `유출초`로 돌아선 원인을 일부 외국계 은행 지점의 단기외채 상환, 일부 국내 은행의 외화예치금 증가 등으로 파악하고 있음. 한 한은 관계자는 "외은 지점 한 곳에서 외화 콜론 형태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면서 기타투자수지가 유출초로 전환했다"며 "규모는 전체 유출초 규모의 절반이 좀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음.
삼성重, 배 한 척으로 반기 매출 올렸다	삼성중공업이 마침내 로열더치셀의 LNG-FPSO 프로젝트를 따냈음. 기본설계계약을 체결한 단계이지만 기본설계 수주업체가 최종수주를 하는 게 업계 관례임을 감안할 때 삼성중공업이 로열더치셀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라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보임. LNG-FPSO의 경우 배 한 척당 가격이 50억달러에 이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원 규모. 지난 2분기에 분기별 매출액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삼성중공업의 매출액은 3조2,319억원. 이번에 수주한 LNG-FPSO 한 척이 삼성중공업의 반기 매출과 맞먹는 셈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